

IV. 동향 브리프

2 디즈니 플러스, 3개월 만에 가입자 400만 명 감소

출처

NDTV, "Disney+ Streaming Service Loses 4 Million Subscribers In 3 Months, Most From Asia", 2023.05.11.

디즈니 플러스는 2023년 1분기 3개월 만에 400만 명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가 구독을 해지함에 따라 전체 가입자 수가 1억 5,780만 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구독 해지 사례 대다수가 인도 지역에서 발생

- 디즈니 플러스는 The Walt Disney Company(이하 "Disney")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배급부서가 운영하는 구독형 OTT 서비스로 2019년 11월 12일 정식 출시
- 인도 지역의 경우, Disney India의 자회사 Star India가 운영하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Disney+ Hotstar)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 핫스타는 인도의 국민적인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 경기의 중계권을 잃고 난 후, 2023년 1분기 동안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이탈하는 상황에 직면
 - 핫스타 서비스를 구독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전 분기 대비 400만 명이나 감소하는 주요 원인이 됨
 -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 12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구독료를 인상한 이후 30만 명의 서비스 가입자가 구독을 해지한 바 있음
- 한편, Disney는 넷플릭스와의 경쟁을 위해 쏟아 부은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비용 절감에 착수
 - Disney의 전 회장 Bob Iger는 회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1월 CEO로 복귀한 이후, 2022년 2월 직원 7,000명 감원을 통해 55억 달러(7조 3,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
 - Disney는 스트리밍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전통적 TV 사업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해 선형 네트워크(linear network)의 영업 수익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18억 달러(2조 3,904억 원)를 기록
 - ESPN 등 주요 스포츠 프로그램의 중계 및 제작비는 증가하는 반면, ABC 방송국 등 자회사의 광고 수익은 감소하며 선형 네트워크의 영업 수익 감소로 연결